

한문운문의 운률과 번역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 일

민족고전들가운데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운문이 적지 않다. 한문의 운문은 운문일반이 그러한 것처럼 운률이 있는 문장, 운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문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에서는 정제된 아름다운 운률을 타고 서정이 흘러가며 시어와 시구가 음악적률동과 박자에 맞게 맞물려진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7페이지)

운문, 시에서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은 음악성을 담보하며 운률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다.

한문의 운문에도 음악성을 살리는 운률이 있다. 한문의 운문은 자기의 고유한 운률조성방식에 따라 운률이 이루어진다.

한문운문에서 운률을 이루는 기본수단은 매 한자가 가지고있는 운(韻)과 음절이다.

한문운문에서 운률은 무엇보다먼저 한자의 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자의 음은 성(聲)과 운으로 나눌수 있다. 성은 우리 민족글자의 음에 비기면 첫소리 자음에 해당하며 운은 첫소리자음을 제외한 가운데소리인 모음과 끝소리자음인 받침에 해당한다. 운률을 이루는 수단은 운이다.

한자의 운은 옛날에 4가지로 구별하였다. 한자의 운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흔히 《4성》이라고 한다.

옛사람들은 평성은 애잔하고 편안한 소리이고 상성은 넓으면서도 들날리는 소리이며 거성은 드뭇고 멀리로 울려나는 소리이며 입성은 빠르면서 막히는 소리라고 하였다. 실례로 《어》라는 음을 가진 한자인 경우에 평성인 《魚》는 《물고기》, 상성인 《語》는 《말》 또는 《말하다》, 거성인 《御》는 《모시다》, 《말을 몰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이것을 성조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발음은 역사적으로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기도 하였다.

한자를 읽을 때 나타나는 성조의 차이는 한문운문에서 운률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

한문운문에서 운을 리용하여 운률을 이루는 기본방법은 압운법과 평측법이다.

압운법이란 시의 행 및 련들사이에서 운률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압운은 시의 행이나 련들사이에서 일정한 개소에 동일한 성조를 가진 한자를 놓아 운률을 이루는 방법이다.

평측법은 운문의 하나의 행안에서 운률을 이루는 방법이다. 시행안에서 음악적인 톨동과 박자는 크게 음절과 그것이 가지고있는 성조에 의하여 나타난다. 한문운문에서는 형식에 따라 동일한 성조의 한자들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시행을 이룸으로써 운률을 조성한다. 이때 한자의 성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여지는데 평성을 하나의 부류로 하고 상성, 거성, 입성을 다른 하나의 부류로 하여 교차 또는 반복시키는것으로 운률을 이룬다. 이런 경우에 평성은 그대로 평성이라고 하고 상성, 거성, 입성을 합하여 측성이라고 한다.

실례로 《月白寒松夜 波安鏡浦秋》(장언우, 《경포대》)라는 한문운문의 한편을 들어본다면 《측측평평측, 평평측측평》으로 운률을 이룬다.

이러한 운률조성방법은 음절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운률을 조성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다시말하여 한자의 음에서 긴소리, 높은소리, 짧은소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시행을 이름으로써 운률을 이룬다.

한문운문에서 운률은 다음으로 음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자는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문자이고 단어이다. 그런데 언어행위에서 한자는 대체로 두음절 즉 두 글자가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 그러므로 옛날의 한문운문은 대체로 두음절로 이루어진 문장들로 되어있다.

실례로 《斷竹續竹 飛土逐肉》을 들수 있다. 오랜 옛날의 생활을 반영한 이 작품은 두 글자 즉 두음절로 이루어진 4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곧 한문운문에서 운률조성에 리용되는 기본음수률은 두음절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변하고 미학정서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두음절을 단위로 하여 운률을 이루던 한문운문은 세음절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운률을 이루었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하여 리용되는 과정에 5언, 7언 등 여러가지 운문형식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언》이란 하나의 음절을 가리킨다.

한문운문의 류형을 나눌 때 고체시와 근체시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기본은 시행을 어떠한 음수률로 이루었는가 하는것이다. 오랜 옛날로 올라갈수록 2, 2음수률의 4언시가 기본이였고 그것이 2, 3의 음수률로 된 5언시로 되었다가 다시 2, 2, 3의 음수률로 된 7언시가 나오게 되었던것은 한문운문에서 음수률로 운률을 이루는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과 음절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운률을 조성한 한문운문을 번역할 때 번역시의 운률을 어떻게 살려주겠는가 하는것이 번역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한문운문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에 한문운문의 운률을 그대로 옮겨놓을수는 없다. 그것은 한문운문의 운률조성방법과 조선어의 운률조성방법이 같지 않기때문이다. 그리고 옛날의 운문형식인 한문운문을 오늘날 문화어로 번역하면서 그 운률을 꼭 그대로 옮겨놓을 필요도 없다. 다시말하여 한문운문번역에서 본래의 한문운문의 운을 그대로 살려주거나 음수률을 본래의 한문운문대로 5언을 다섯음절로, 7언을 일곱음절로 옮겨놓을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한문의 운문을 오늘에 와서 번역하는것은 지난날에 창작된 문학작품으로서의 한문운문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속에서 민족의 생활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기본은 해당 작품에 반영된 사상주제적내용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한문운문번역에서 운률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번역문의 행 및 련구성을 잘하여야 한다.

한문의 운문은 행과 련으로 이루어지는데 운문의 종류에 따라 그것은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한문운문번역에서 행 및 련구성을 잘한다는것은 해당 운문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을 살려준다는것을 말한다.

한문운문은 대체로 두행이 하나의 련으로 되며 두개이상의 련이 한편의 운문으로 된다. 한문운문의 이러한 특성을 번역과정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문운문번역에서 시행의 길이는 본래의 시행의 내용과 문장구성형식에 관계된다. 시행이 단일문이면 번역문이 짧아지지만 복합문이라면 번역문의 시행이 보다 길어진다. 그리고 5언시의 번역문에 비해 7언시의 번역문이 길어진다.

《물나라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한문운문번역에서는 본래의 운문의 행 및 련의 개수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시행의 길이를 잘 다듬어야 한다. 그러자면 함축, 생략, 보충 등 문체론적수법들을 원만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한문운문번역에서 운률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음수률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문정형운문의 번역을 정형화하는것이다.

한문의 정형시는 시행의 음수률이 대체로 일정하다. 이러한 한문운문을 번역하면서 운률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음수률을 잘 살려주는것이다.

《10월인데 추위가 빨리 다달아

우리안 닭 얼어서 울지 못하네...》

우의 실례는 5언절구의 한행을 7, 5의 음수률로 번역한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보면 4(2, 2), 3/5(2, 3)의 음수률로 운률을 조화시켰다.

《벼 벤 논에 물을 빼고 갈아 뒤쳐 보리 심고

보리 익어 베어내고 그 자리에 벼모 심네

기름지고 살찐 땅을 잠시인들 묵일소나

사시장철 난알 자라 푸르르고 누르르네》

우의 실례는 7언절구를 4, 4의 음수률로 번역한것이다.

한문의 5언시와 7언시번역에서 7, 5나 4, 4의 음수률로 운률을 이루는 방법을 리용하는것은 번역문을 정형운문으로 만들고 운률을 살려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한문운문번역에서 무조건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것은 아니며 이러한 형식만을 절대화할수도 없다. 그것은 7언시를 7, 5의 음수률로 번역한 실례가 있기때문이다. 운달선(1819-?)이 고전소설 《춘향전》을 시로 옮긴 《광한루악부》는 7언절구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번역은 다 7, 5조였다.

한문운문번역에서 7, 5조나 4, 4조를 리용하는것은 사실상 우리 민족시가형식에서 널리 리용하던 운률조성방법을 살려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7, 5조란 2, 2, 3/2, 3의 음수률이며 4, 4조는 2, 2/2, 2의 음수률이다. 이러한 음수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에서 널리 리용하였던 운률조성방식이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작품들에는 2, 2 또는 2, 3(3, 2)의 음수률이 많이 리용되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대체로 3, 2 또는 4(2, 2), 5(3, 2)의 음수률로 이루어졌다.

...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니러 우리라 새여
넌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러 우니노라

여기서 《우리라 우리라 새여》는 3, 3, 2의 음수률로 이루어진 시행이며 《자고니러 우리라 새여》는 4(2, 2), 3, 2의 음수률로 이루어진 시행이다.

한편 중세에 널리 창작된 국문시가작품들은 대체로 4, 4조의 음수률을 가지고있다. 실제로 차천로(1556-1615)의 《장춘별곡》을 들수 있다.

이처럼 7, 5조나 4, 4조는 우리 민족시가에서 널리 리용된 음절수로서 민족적정서를 가장 풍부하게 담을수 있는 운률구성방식의 하나이다.

한문운문에서 정형운문인 절구나 룰시에 대한 번역에서 5언을 7, 5조로 번역하고 7언을 4, 4조로 번역하는것은 바로 민족시가의 고유한 운률구성방법을 리용하여 운률을 조성하는것이다.

한문운문에서 무정형시인 고체시에 대한 번역은 대체로 자연률에 기초하여 운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고체시번역에서는 정형운문인 절구나 룰시처럼 운률 구성에 특별히 관심을 돌리지 않아도 번역시작품이 가지고있는 자연률이 그대로 시적운률로 된다.

들쑥날쑥 드높은 봉래산은
그 형세 형언 못하리
때때로 못신신들 내려와
조용히 그속에서 노닐은다네...

이것은 한문의 무정형운문인 고체시의 한구절을 번역한것이다.

한문의 무정형운문인 고체시를 번역할 때 자연률에 의거한다고 하여 번역시의 운률조성을 무시한다는것은 아니다. 정형운문의 번역과 무정형운문의 번역에서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고체시는 절구나 룰시처럼 여러가지 운률구성방법에 구애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다. 그것은 시자체가 일정한 운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민족고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문운문을 훌륭하게 번역하려면 운률을 잘 살려서 번역하여야 한다.

(필자는 연변대학 교원)